

# 18세기 史書에 보이는 世界史 認識體系

## —《同文廣考》를 중심으로—

盧 泰 敦

- |                       |                         |
|-----------------------|-------------------------|
| 一. 머리말                | 3. 日本記, 臺灣國考, 琉球記       |
| 二. 《同文廣考》의 體制와 著者     | 4. 北荒諸夷考                |
| 1. 寫本比較               | 5. 中國史                  |
| 2. 著者와 著述時期           | 四. 《同文廣考》의 성격           |
| 3. 體制                 | 1. 저술배경                 |
| 三. 《同文廣考》의 内容         | 2. 《同文廣考》에 브이는 世界史 認識體系 |
| 1. 東夷考                | 五. 뒷말                   |
| 2. 夷考, 羌考, 西域考, 天竺諸國考 |                         |

### 一. 머리말

世界史 認識이란 自國을 포함한 世界 각 지역의 주민집단의 역사에 대한 일정한 이해체계를 뜻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自國과 그 주변집단과의 關係史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하여, 교섭관계를 가져왔던 대상국들의 역사 자체에 대한 이해로 진전되며, 나아가 직·간접으로 인식의 범주 내에 포함된 세계 내의 諸國의 상호관계와 그들로 구성된 國際秩序와 그 文明의 성격에 대한 일정한 이해체계를 구성하는 데로 나아가게 되는 바이다. 이러한 세계사 이해체계는, 일차적으로 각 시기인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달랐고,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 자국과 인접국과의 관계 및 當代의 국제질서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에, 자연 각 시대마다 차이성을 나타내었다.

전근대시기 우리 先人們의 세계사 이해체계는 일단 史書의 편찬형식을 통해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古代史書가 전해지지 않고 中世史書인 《三國史記》가 最古의 現傳史書인데, 紀傳體인 이 사서에선, 本紀 부분에서 인접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기사들이 散見되어지나, 外國列傳이 없다. 그에 따라 체계적인 외국사에 대한 어떤 이해체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체계는 곧 기본적으로 中國中心의 天下觀과 世界秩序를前提로 한 위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 세계사에 대한 인식 체계도 그러하였음을 나타낸다. 조선 초기의 《高麗史》의 경우도 外國列傳을 따로 두지 않았다.世家에서 인접집단과의 斷續的인 접촉사

\* 필자 : 서운대 국사학과 부교수

실과 그들의 來歷에 대한 當代人們의 지식이 散見되어지며, 그것들을 통해 당대인들의 세계사 인식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사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사 인식체계는 《삼국사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와 유교문명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할 때 중국 이외의 여타 제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들을 포함한 當代의 세계 역사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체계는 제시되기 어려웠던 바이다. 물론 신숙주의 《海東諸國記》와 같은 日本에 대한 저술이나, 女眞이나 琉球 등과의 교섭에 따른 일정한 이해는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당시 조선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담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서의 형태로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직접 교섭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던 지역의 역사에 대해선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할 때 조선인들의 세계사에 대한 지식은 중국 사서의 四夷傳이나 外域傳 등을 통해 얻었으며, 자연 그 인식의 토대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그것이었다. 그런 면은 이 시기 조선인의 세계관을 담은 지도인 天下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sup>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세계사 인식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다. 兩亂을 겪은 후 협실적인 필요성으로 日本과 女眞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고, 나아가 사서의 한 부분에 黑齒傳과 女眞傳 등을 두는 저술이 등장하였다.<sup>(2)</sup> 한편 崇明排清意識이 진전되면서, 중국사에 대한 조선인 나름대로의 정리가 시도되어 宋·明 등의 역사에 대한 수다한 저술이 행해졌다.<sup>(3)</sup> 이러한 사업은 중국사 자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증진을 가져왔고, 그와 함께 조선과 직접 교섭이 없던 중국 인근지역의 제집단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폭넓게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7세기 이후 북경을 통해 서양의 학문이 전해짐에 따라, 세계에 대한 지식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었다. 서학은 종래 전통적인 학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많은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세계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중화론파는 또다른 차원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球形인 세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sup>(4)</sup> 그 한 예이다.

이렇듯 조선 후기인들의 세계사 인식에선 여러 면에서 새로운 모색이 행해졌다. 그런 단면들은 이 시기 학인들의 논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들은 어느 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면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조선 후기인들의 의식세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간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이 시기인들의 세계사 인식을 담은 논고는 대개가 짧은 史論 형태의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각 국의 사실을 담은 세계사체계의 사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면

(1) 韓國圖書館學研究會 編, 1977 《韓國古地圖》pp. 191~196 참조

(2) 洪汝河의 《集纂麗史》에서 外夷列傳으로 각각 日本·契丹·女眞이 서술되었다. 許穉의 《東事》에서도 黑齒列傳을 두었다. 그리고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安鼎福의 東史外傳에 渤海傳·東眞傳과 女眞傳·日本傳 등이 있었다(河字鳳, 1989 《朝鮮後期 實學者の 日本觀》pp. 106~107).

(3) 閔斗基·吳金成·李成珪, 1980 《朝鮮學人의 中國史 研究의 整理 및 評價》 서울대 東洋史學科

(4) 洪大容, 《湛軒書》內集 補遺 卷4 醫山問答

에서 『同文廣考』가 주목된다. 古今에 걸쳐 당시까지 조선인들에게 알려진 수많은 나라와 종족들에 대한 서술을 포괄한 30권의 방대한 분량의 이 사서는 그 내용과 체계는 일단 차치 하더라도 우선 당시인들의 세계에 대한 지식범위와 그리고 세계사 인식체계의 일단을 말해 주고 있다는 면에서 유의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同文廣考』의 사본 비교, 체제와 저자, 저술년대, 내용분석, 성격 등의 순으로 살펴보자 한다.

## 二. 『同文廣考』의 體制와 著者

### 1. 寫本 比較

『同文廣考』는 현재 完帙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奎章閣에 4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著者未詳의 史書로 분류되어 있다. 가로 19.5cm, 세로 27cm의 白紙에 기술되어 있고, 각권은 각각 154, 160, 126, 14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책은 東夷考부터 시작하여 신라말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하였다. 제 2책은 氐考에서 시작하여 ‘西戎’이란 큰 태두리에 포함되는 중국 서부지방의 제종족과 국가들의 역사를 그 흥기하였던 순으로 明末까지 서술하였다. 그리고 西域考와 天竺諸國考에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와 인도 방면의 국가들을 서술하였다. 제 3책은 日本記, 琉球記, 臺灣國考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 4책은 北荒諸夷考로서 匈奴 이래로 契丹에 이르기까지의 유목민국가들의 역사를 시기순으로 서술하였다.

이 규장각본 『同文廣考』는 일종의 四夷傳 체계로서, 원래 4책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前間恭作의 ‘古鮮朋譜’에서도 ‘同文廣考’를 언급하면서 淺見倫太郎이 ‘同文廣考’四冊을 소장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어, 同文廣考가 원래부터 4冊으로 구성되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런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一叢(方種鉉)文庫에 2책의 『同文廣考』가 있다. 권 1과 권 24가 그것이다. 책의 크기는 가로가 15.8cm, 세로가 23.8cm이다. 제 1권은 228쪽이며, 그 표지의 둑은 부분에 ‘共三十’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제24권의 내용이 규장각본 제 1권과 동일하다. 이 일사문고본은 가로로 선을 치고 版心에 ‘同文考’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목판에다 찍어낸 종이에 필사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同文廣考』가 3책이 있다. 그 중 한권의 첫 페이지에 李址鎔의 藏書印이 찍혀 있다. 크기는 대략 가로 19cm, 세로 29cm이다. 각 책은 그 분량이 각각 136, 147, 136쪽이 된다. 이 국립중앙도서관본(이하 國本이라 함)의 한 책의 뒷부분의 내용이 일사문고본의 제 1권의 앞부분과 같다. 國本의 경우 金陵에 관한 서술이 제 1책의 삼분의 이 가량을 차지하고, 이어 燕京에 대한 서술로 이어지는데, 연경에 대한 서술은 다른 권에서 계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비해 일사문고본은 제 1권이 연경에 대한 서술만으로 되

어 있다. 양본은 그 서술 항목의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나, 연경에 관한 서술 부분에선 그 내용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일사문고본의 연경을 중심으로 한 明代史에 관한 서술에서, 明初 洪武帝의 政變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 말미에 자세한 것은 ‘金陵記’에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魏忠賢의 犹政을 서술하면서 그가 吳郡 出身의 周順昌을 죽인 사건을 언급하고 자세한 것은 ‘蘇州記’에 있다고 하였다. 이 金陵記와 蘇州記는 모두 國本의 두 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면을 볼 때 국본과 일사문고본의 《同文廣考》는 동일본의 轉寫本으로 볼 수 있다. 국본의 제 1책은 金陵과 燕京에 관한 것이고, 다른 두 책은 汴京, 江都, 梁蜀, 蘇州, 杭州 등 중국의 주요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중국사의 각 시대사 등을 서술하였다.

이 세 블 중 어느 것에도 서문이나 발문은 없다. 필체도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규장각본은 동일인의 필체이나, 국본과 일사문고본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필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볼 때 이 세 필사본 중, 각 册의 첫머리에 卷次를 썼고 目次를 나열하였으며 총 卷數를 明記하는 등 보다 정연한 체제를 갖춘 일사문고본이 가장 늦게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 규장각본과 국본 중 어느 것이 먼저 필사된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규장각본이 ‘四夷’에 관한 서술인데 비해 국본이 중국에 관한 것이어서, 양자는 반드시 처음부터 같은 체제의 일관된 작업 의도에 따라 편술된 것인지도 의문으로 제기된다. 즉 본래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한 同名의 別個 著述인데, 뒤에 양자를 결합해 一帙로 엮은 것이 일사문고본 《同文廣考》이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규장각본 4책의 표지에 각각 同文廣考 一, 二, 三, 四라 표기해 놓아서, 이 4책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저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共三十卷’의 일사문고본 《同文廣考》는 비록 完帙은 전해지지 않지만, 현존하는 책만을 통해 볼 때도 그 서술 내용과 범위 및 분량은 浩大한 것이다. 그것을 한 개인이 저술하였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장각본과 국본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가령 규장각본 제 2책의 西羌考에서, 羌族에 속하는 제집단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중 지금 泸川省 岷山 以西에 있었던 唐代의 西山八國과 唐朝와의 교섭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소국들의 前身에 대해서 ‘事詳雲南記’라고 하였다. 즉 ‘雲南記’에서 상술하니 그것을 참조하라는 뜻이다. 이때 운남기는 타인에 의해 쓰여진 특정 저술이 아니다. 國本 《同文廣考》를 구성하고 있는 燕京記 · 金陵記 · 汴京記 등과 같은 한 편명으로 여겨진다. 운남기는 현전 국본 《同文廣考》 3책에는 없으나, 결실된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규장각본 제 2권의 ‘西域考’에서 西域 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 그 대략적 개관을 서술하고 그 西端이 大秦에 이른다고 하면서 ‘詳見大秦記’라 하였다. 이 역시 ‘大秦記’를 전제로 한 것이며, ‘詳見某某記’라는식의 표현은 國本에서 散見되어진다. 大秦記 역시 국본이나 일사문고본의 결실된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살필 ‘女眞記’와 같은 부분도 그러하다. 그리고 규장각본

은 ‘四夷’의 역사에 관한 것이니, 자연 중국사에 대한 저술을 전제로 한 체제라고 보아야겠다. 이렇게 볼 때 규장각본과 국본이 별개인에 의한 저술이라고 단정키 어렵다. 규장각본은 저자의 《同文廣考》의 내용 중 四夷傳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따로 필사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필사 당시에 아직 중국사에 관한 부분이 그 나름대로 충분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을 수는 있겠다. 아울러 이 책은 일종의 자료집과 같은 성격도 지니고 있어, 처음부터 일정한 체계와 구성을 갖추고 써나갔다고 하기보다는, 대체적인 윤곽만을 세우고 각 부분별로 서술해나간 뒤, 그런 부분들을 모아 편집한 형태였다고 여겨진다. ‘同文廣考’라는 제목도 그러한 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그런 면은 또한 이 저술이 대를 이어 家學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의 여지도 있음을 말해준다. 가학으로 대를 이어 저술된 사례는 《海東釋史》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5)</sup> 그리고 《燃藜室記述》도 朝鮮古書刊行會本의 原集(33권), 續集(7권) 및 別集(19권) 중 특히 續集은 아마도 後人에 의해 追補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여 동일한例로 여겨진다.<sup>(6)</sup> 30책 《同文廣考》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어 있을 방대한 지식의 양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울든 그런 면을 상정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과 주된 부분은 이 책의 첫 저자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아야겠다. 즉 현전하는 세 종류의 필사본은 각각 동일 저서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이 저서의 필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 2. 著者와 著述時期

세 필사본의 어느 곳에서도 저자에 대한 기술이 없다. 근자에 행해진 규장각본의 해제에선 저자 미상이라 하였다.<sup>(7)</sup> 國本에 대해선 ‘洪奭周’(1774~1842)의 저술이라 하였는데<sup>(8)</sup>, 저자를 흥석주로 단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본은 李址鎔의 藏書印이 찍혀 있어, 이 책이 그의 손을 거쳐 총독부 도서관에 들어갔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1797년에 저술된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에서 《同文廣考》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燃藜室記述》의 歷代典故篇에서 여러 군데 《同文廣考》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sup>(9)</sup>, 인용된 기사는 규장각본 제1책의 내용과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燃藜室記述》의 文藝典故篇에서 《同文廣考》를 野史로 분류하였고 저자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처리되었다.<sup>(10)</sup> 그리고 淺見倫太郎所藏本 《同文廣考》4冊을 보았던 前間恭作도 그의 《古鮮冊譜》에서 저자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5) 《海東釋史》의 地理考는 韓致齋의 조카인 韓鎮書에 의해 이루어졌다.

(6) 李丙燾, 1967 〈연려실기술 해제〉 《국역 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7)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吏部 1 p. 222.

(8) 李相殷 編, 《古書目錄》上 p. 716. ‘同文廣告 (朝鮮)洪奭周編 寫本 3冊’. 여기서의 ‘同文廣告’는 ‘同文廣考’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9) 《燃藜室記述》別集 卷9, 衛滿朝鮮·東沃沮·漢四郡二府·三韓·泰封·論東國地方

(10) 《燃藜室記述》別集 卷4, 野史類

그런데 1849년에 쓰여진 李源益(1792~1854)의 《東史約》에서<sup>(11)</sup> 《同文廣考》를 여러 군데서 인용하면서, 그 저자를 ‘本朝人 李敦仲’이라고 明記하였다.<sup>(12)</sup> 《東史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므로 자연 《同文廣考》의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주로 인용되었고, 그리고 日本과 契丹에 관한 부분도 인용되었다.<sup>(13)</sup> 이에서 인용된 귀절들은 규장각본 《同文廣考》의 제1, 3, 4책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또는 짧아해서 옮긴 것이다. 그런데 《東史約》 권1 鴻臚 4년 조에서 百濟와 驪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挾註에서 驪鞨의 來歷과 그 후에인 女眞에 관해 《同文廣考》의 기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규장각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sup>(14)</sup> 아마도 이 부분은, 국본과 일사문고본 《同文廣考》의 ‘燕薊記’에서 建州女眞과 싸우다 죽은 明末의 장군 劉綱의 廟가 北京에 있는데 異蹟을 보였음을 언급하면서 劉綱에 관해 선 ‘詳見于女眞記’라 하였는데, 이 ‘女眞記’에 있던 내용으로 여겨진다. 이 ‘女眞記’는 혼전하지 않는데 일사문고본 30책 《同文廣考》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서 李源益이 《東史約》을 저술하였던 1840년대에는 《同文廣考》가 혼존하는 규장각본과 국본의 내용이 함께 포함된 형태의 것, 즉 30권의 일사문고본과 같은 것이었음이 드러나며, 그 저자는 李敦仲이었음을 알 수 있다.

李敦仲에 대해서는 그 家系나 학문적 경력 등에 관해 확인되어지는 바가 없다. 단 규장각본 《同文廣考》 제1권의 ‘駕洛考’ 중에서 王亂 중에 儂寇에 의해 首露王陵이 도굴되었는데 그 때에 무덤에서 銅盆과 같이 큰 頭蓋骨이 나왔고 棺外에 두 미인이 殉葬되어 있었는데 헛빛에 노출되자 사그라져 버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말미에

余友李平一爲余言 乾隆甲戌爲金官守 明年乙亥依舊俗祭城隍 濟齋致處 既罷還府 就寢依稀 見一老公  
金冠五色斑錦衣 體貌偉碩 來坐公堂 余遽前拜 不覺膝跪稱臣 神人謝其厚意 余方知其爲首靈王 就問未來  
休咎 答曰 公五六年後頗不吉 宜戒云 平友果以庚辰八月奄歸道山 亦可異也

라 하였다. 여기서 ‘乾隆 甲戌’은 英祖 30년(1754)이다. ‘庚辰’은 1760년이다. 그리고 규장각본 권3의 日本記에서 日本의 역대 천황을 나열하였는데, 제일 끝이 戊辰年(영조 24년, 1748) 通信使가 방일하였을 때에 13세였다는 천황(櫻町)에 이른다. 그가 이용할 수 있었던 日本 천황에 관한 정보가 1748년까지의 그것이었음을 말해준다. 1797년에 저술된 《燃藜室記述》에서 《同文廣考》의 저자를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어떤 면을 의미하는지는 확연히 어렵지만, 아마도 李敦仲이 당시 18세기 말에는 문화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1797년에서 꽤 오래 전에 《同文廣考》의 轉寫本이 쓰여져 序文跋文도 없는

(11) 《東史約》은 1989년 國史編纂委員會에서 영인되어 출간되었다. 《東史約》에 대해서는 國編의 영인본에 수록된 韓永愚教授의 〈十九世紀 中日 李源益의 歷史敍述 一東史約 解題一〉 참조.

(12) 國史編纂委員會, 영인본 《東史約》 p. 11.

(13) 위의 책, p. 15, 16, 49.

(14) 규장각본 卷4 北荒諸夷考의 첫머리 부분에서 東胡系의 諸種族 중의 하나로 女眞을 간단히 언급한 기사는 있으나, 《東史約》에 길게 인용된 《同文廣考》의 기사와는 다르다.

채로 유포되었고, 李敦伸 자신도 이미 죽은지 상당 기간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면들을 고려하면 《同文廣考》는 1760년 이후 얼마되지 않아 쓰여졌고, 곧 이어 李敦伸도 죽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고, 다만 그의 《同文廣考》가 18세기 후반에 쓰여진 것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同文廣考》는 각 부분별로, 또는 전체가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그중 현존의 국본과 일사문고본 사이에 각권의 배열 순차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사문고본에서 각 卷의 번호를 매겨 30권으로 체계를 갖춘 면을 보아, 일사문고본은 가장 늦은 시기에 아마도 그의 후손에 의해 정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 《同文廣考》의 체제에 대해 살펴보자.

### 3. 體 制

현존하는 세 본의 목次는 다음과 같다.

국 장 각 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일 사 문 고 본
卷 1: 東夷考 등	*金陵記, 燕薊記, 北京宮殿記	卷 1: 燕薊記, 燕京宮殿記, 大明逸記 등
卷 2: 氐考 등	*梁蜀記, 江都記, 汴京記	:
卷 3: 日本記 등	*蘇州記, 杭州記	卷 24: 東夷考 등
卷 4: 北荒諸夷考		:
		〈共 30卷〉

이 중 일사문고본이 보다 정리된 틀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단 이에 의거해 원래의 구성을 복원해 본다. 규장각본의 권 1이 일사문고본의 권 24이므로, 규장각본의 권 2, 3, 4는 권 25, 26, 27이 되겠다. 그 부분이 중국 외의 주변의 ‘四夷’에 해당하므로, 권 23까지는 중국에 관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장성 이남 지역의 주요 지역을 단위로 해서, 그 지역의 문물과 그 곳을 무대로 전개된 각 시기 漢族의 중국사의 면모를 서술한 것으로 23권을 구성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사문고본 권 1은 燕薊記·燕京宮殿記·大明逸記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연경지역의 문물과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역사를, 특히 明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권 1의 내용은 포괄해서 ‘연계기’로 불러도 좋겠다. 권 2는 金陵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국본에선 이의 순서를 바꾸어, 명의 초기 수도였던 남경지역을 논급한 금릉기가 먼저 나오고, 이어 일사문고본 권 1의 북경지역에 관한 내용의 전반부가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원래 《同文廣考》가 저술될 때는 국본과 같은 순서였을 것인데, 일사문고본 단계에서 그 순서를 재배열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본의 금릉기는 그 서술 분량이 가로 19cm, 세로 29cm의 90쪽에 달하므로, 가로 15.8cm, 세로 23.8cm의 일사문고본 크기로 대치하면 죽히 한권이 될 수 있다. 국본의 제 2책, 제 3책에 수록되어 있는 梁蜀記·汴京記·江都記·蘇州記·杭州記도 각각 한 권이 될 수 있는 분량이고, 일사문고본 체제에

서 실제 그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위 세 종류 轉寫本에서 그 지역에 관계된 사실을 언급하다가 ‘事詳見于某某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雲南記’ ‘南昌府記’<sup>(15)</sup> ‘閩記’<sup>(16)</sup> ‘江漢記’<sup>(17)</sup> 등이 보인다. 이들 지역에 관한 서술이 각각 한 권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西安과 洛陽에 관한 서술이 각각 한 권을 구성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일단 일사문고본의 체제에서 13권의 목차를 구성해 볼 수 있다. 나머지 10권도 太原・桂林 등등 역사적으로 주요하였던 지역을 단위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 유의되는 면은 國本과 일사문고본의 燕薦記에서 北京의 天主教 教堂의 존재를 언급하고 ‘詳見西洋記’라 한 것과, 그리고 규장각본 권 2의 ‘西域考’에서 西域諸國과 中國과의 교섭의 내력을 서술하면서 曹魏代에 大秦諸國이 사신을 보냈고 그 珍玩物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詳見大秦記’라 하였고, 그리고 大秦 以西는 日沒處로서 마태오 리치(利瑪竇)가 말하는 바의 大西洋이 이 지역 같다고 하였으며 明代의 大西洋 歐羅巴의 入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 ‘西洋記’가 한 권을 구성하였고, 大秦記는 그 卷 내에서 한 篇을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西洋記는 권 28 이후의 한 권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女眞記’와 ‘蒙古記’가 보인다. 즉 국본과 일사문고본의 燕薦記에서 北京에 있는 明末의 장수 劉綱의 廟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가 建州와 싸워 전사하였던 사실은 ‘女眞記’에 詳見할 수 있다 하였고, 그리고 國本의 ‘汴京記’에서 北宋 말기 변경이 金寇에 의해 함락되었던 전투과정은 ‘女眞記’를 보라고 하였다. 즉 ‘女眞記’는 蘭慎・韓鵞・女眞・建州野人 등으로 이어지는 그 족속의 내력과 金과 清의 興起過程 및 그들과 北宋 및 明과의 전투 등에 관계된 내용의 서술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蒙古記’에 대한 언급은 燕薦記 중에서 보인다. 明初 永樂帝가 政變으로 집권한 후에 계속된 명 종실간의 분쟁의 수습과정을 서술한 부분의 말미에서 帝가 北虜를 親征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실은 ‘蒙古記’에 있다고 하였다. 이 ‘蒙古記’는 몽고족의 내력과 그 흥기과정 및 元代史의 일부와 그 뒤의 명과 풍고와의 관계 등이 서술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이를 ‘女眞記’와 ‘蒙古記’가 권 23까지의 중국사 부분에 배열되어 있었을까? 잠시 양자에 대한 표현을 보면, 蒙古는 ‘北虜’라고 지칭하였다. 女眞은 清代의 경우에선 當代史이기도 하였으므로 그 표현이 절제되었고 ‘清人’으로 표기하였지만, 入關 이전의 사실에 관한 부분에선 建州 黽虜라<sup>(18)</sup> 하였다. 그리고 북송 말의 사실에 관한 汴京記의 기술에선 金寇라 하였다. 즉 入關하여 중국에 자리잡기 전 시기의 서술에서 ‘虜’로 표현하였으며, 蒙古記와 女眞記의 내용도 몽고나 만주

(15) 일사문고본 《同文廣考》卷1 大明逸記

(16) 國立中央圖書館本 《同文廣考》金陵記 p. 88.

(17) 위의 책, 梁蜀記 p. 9.

(18) 일사문고본 《同文廣考》卷1 大明逸記 중 ‘吳三桂本末’

지역에서의 그것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때 兩記는 중국사 부분보다는 ‘四夷’ 부분에 배열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사에 관한 조선 후기의 사서에서 女眞傳을 黑齒傳 등과 함께 외국열전으로 두었던例들이 보임은 이 면에서 참고가 되는 바이다.<sup>(19)</sup>

이렇게 보면 권 24부터 권 30사이에 규장각본의 4권과 그리고 각각 ‘女眞記’ ‘蒙古記’ ‘西洋記’ 등이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면 전체 30권 중 중국사 부분이 23권, 그외의 국가나 종족들에 관한 것이 7권이 되는 바이다.

그 구체적인 서술형태를 보면, 중국 이외의 부분의 경우 서술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자리적 위치, 그 국가나 집단의 내력과 주요한 역사적 사실, 중국과의 교섭 관계, 日本과 琉球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와 그 문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부분의 내용은 각 지역의 자리적 상황, 역대의 연혁, 문물 등이 기술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관계된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이 풍부히 기재되었는데, 그 중 주요 주제들은 紀事本末體 형태로도 기술하였고 말미에 ‘按曰’ ‘評曰’이라 하여 저자의 所見을 괴력하였다. 고적도 그에 관계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과 연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다. 때로는 그에 관계된 기존의 저술을 그대로 전재하기도 하였다. 각 권이 일종의 중국의 지방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들을 아우르면 중국사에 대한 폭넓고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보듯 《同文廣考》는 그 구성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중국을 위주로 하였고, 그외에 한국과 그 밖의 저자가 알고 있던 당시 세계 여러 지역의 국가와 종족들을 포괄해, 그들에 관한 광범한 고급의 역사적 지식들을 정리하였다. 단 전체를 관통하는 일정한 체계와 법례에 입각한 서술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궁익이 《燃藜室記述》에서 이 책을 野史로 분류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은 비록 정제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선인에 의한 정리된 일종의 세계사라고 할만한 최초의 저술로서, 그리고 이 책에 포함된 서술대상과 내용의 방대함에서, 주목되어야 할 면을 지녔다. 그리고 ‘西域諸國’과 서양에 관한 지식을 지녔으면서도 여전히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되는 바이다. 그럼 이런 면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 三. 《同文廣考》의 内容

#### 1. 東夷考

현존하는 세 轉寫本에 나타나 있는 내용 중 먼저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서술을 검토하겠다. 곧 규장각본 4권이 그것이 되는데, 붙여진 권의 순서에 따라 살펴겠다. 제 1권이 우

(19) 주 (2)와 같음.

리나라의 역사이다.

첫머리에 ‘東夷考’라 하고, 宋代人 呂祖謙의 글을 인용해 중국 上古 文獻에 등장하는 등 이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그리고는 동이의 구역이 遼陽 以東에서 東海까지, 북으로는 사마에 접하고 남으로는 조선에 미치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표하였다. 이 부분은 조선인의 기원으로서의 東夷와 그 역사 무대에 대한 서술로서, 우리 역사의 서설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어 檀君朝鮮・箕子朝鮮・衛滿朝鮮을 차례로 기술하였다. 이어 三韓을 서술하였다. 여기까지의 서술에서 조선 후기의 다른 사서들에 비해 특별히 새로운 견해는 없다. 箕準이 남천하여 馬韓王이라 자칭하였다고 했으나, 특별히 馬韓正統論과 같은 그러한 시각은 개재되어 있지 않다. 그는

三朝鮮以後 東夷遂無君長 其部落分散有三韓之號 曰馬韓辰韓弁韓

이라 하였다. 즉 국가와 군장이 없었던 시기라 보았으니, 굳이 정통론을 설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는 삼한과 삼국을 바로 연결시킨 崔致遠의 견해에 대해, 삼한의 위치에 대한 三國志의 기사를 들어서 의문을 표하였다. 이미 오래 전 한백경에 의해 이 문제가 논파된<sup>(20)</sup> 이후인 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는 듯 하다.

삼한에 대한 서술은 《삼국지》의 기사에 의거하였고, 그리고 삼한 때에 있었던 東沃沮와 漢貊에 관해 《三國志》기사를 인용해 서술하였다. 그의 상고사 체계는 삼조선—삼한·옥저·예맥—삼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삼국의 역사는 신라사·고구려사·백제사 순으로 서술하였다. 각각 왕 별로 간략히 주요 사실들을 기술하였다. 그 내용 면에선 《三國史記》이래의 전승사서와 중국측사서의 기사를 발췌하여 압축한 것으로서, 특별히 새로운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간간히 ‘按說’과 ‘評曰’을 붙였다. 그 중 하나로 고구려사 부분에서, 삼국지에는 王莽 대에 고구려왕 騞를 斬首하였다고 했는데 東史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며, 太祖王에서 東川王 간의 王系에 대해 삼국지와 삼국사기 간에 차이나는 점을 지적한 후에

始知外國史 中國人不能詳知 載之書籍者 類多如此

라 하였다. 우리측과 중국측의 사료를 대비 검토한 후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본국 전승을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증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史評으로서는 당 태종의 침공을 격퇴한 安市城主와 淵蓋蘇文에 대한 것이 유의된다. 당태종이 안시성주를 칭찬한 데에 대해 그가 진정 才勇之士였다면 天子에게 憤訴하여 그 前驅가 되어 임금을 죽인 연계소문을 치고 高氏를 복위시켜야

(20) 韓百謙, 《東國地理誌》後漢書 三韓條

하였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연개소문을 非常人이라고 평한 王安石의 말을 삼국사기에서 전했는데, 이에 대해 李敦仲은 그렇다면 亂臣賊子는 다 非常人이라 할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연개소문이 파견한 장수가 패전하였음을 들어 그의 군사적 재능도 보잘것 없었다고 폄하하였다. 연개소문에 대한 이런 류의 폄하는 동국통감 아래 계속된 것이다.<sup>(21)</sup> 忠과 事大의 논리에 바탕을 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반적인 시각으로서, 《同文廣考》에서도 그려함을 보여주며 李敦仲의 역사인식의 기저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삼국사에 이어 ‘後百濟考’와 ‘泰封考’가 있다. 그 다음 ‘駕洛考’와 ‘耽羅考’, 그리고 于山國 울릉도에 대한 기사가 이어진다. 이중 ‘駕洛考’는 주로 《三國史記》와 그리고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에 의거하여 쓰여졌고 그 후반부에 朝鮮時代의 사건이 附記되어 있다.<sup>(22)</sup> 耽羅考에선 三姓穴神話에서부터 고려말까지 제주도의 역사를 집약해 놓았다. 끝으로 東國歷代總目이 附載되어 있다.<sup>(23)</sup>

이상에서 보듯 이 권은 뚜렷한 일관된 체계와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실제 작업도 처음부터 通史를 쓴다는 전제 하에서 일정한 틀을 세우고 그에 의거해 시대순으로 서술하였던 것 같지 않다. 東夷考·漢貊考·某某考하는 식으로 우리 역사상에 등장하였던 주요 대상에 대한 개별의 논고를 작성하였다가, 뒤에 이들을 모아 조정하여 시대순으로 배열하여, 신라말까지의 역사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 18세기에 유행하였던 綱目體史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강한 이념성이 타든가, 編年體史書의 정연함과 같은 면은 지니지 못하였다. 반면에 편년체의 年代記가 지닌 자료집과 같은 성격을 지양하고, 그리고 형식과 체계에 덜 구애를 받으면서, 대상이 되는 국가나 집단의 개요를 압축해서 파악, 전달하는 데는 유효한 면을 지닌다. 各考를 章別로 바꾸면 그 나름의 간결한 역사개설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서술형식은 특히 잘 모르는 異域의 여러 족속들에 대한 잡다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유효한 면을 지닌다. 그런 면은 奎章閣本 제 2권의 ‘西戎’과 ‘西域諸國’에 대한 서술에서 잘 발휘되고 있다.

## 2. 西考, 羌考, 西域考, 天竺諸國考

### 가) 西 戎

이 권은 《同文廣考》의 내용 중 특히 유의되는 부분이다. 그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중국사에서 西戎으로 지칭되는 四川省·陝西省·甘肅省 방면에 있었던 氐·羌 등등의 諸族과 그들이 세운 나라들의 역사이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서쪽에 있었던 이른바 ‘西域諸國’들의 역사이다.

(21)拙稿, 1989 〈淵蓋蘇文과 金春秋〉《韓國史 市民講座》5 참조

(22)本稿 p.46에서 소개한 저자의 친구인 李平一에 관한 사건과, 王亂 때 수로왕릉이 도굴된 사실을 적은 것 등이 그것이다.

(23)洪萬宗의 그것과는 다른 내용으로서 역대 왕조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略記이다.

먼저 전자를 살펴보면, 첫머리에 ‘氐考’가 있다. 이에선 먼저 氐族의 기원에 대해 논술하였다. 上古 때에 武落 鐘離山 石穴에서 태어난 巴務相이 神異한 능력을 발해 무리의 羲君(首長의 뜻)이 되어 夷城에 자리잡으니, 이가 氐族의 始祖라고 하였다. 이어 秦漢 이래 曹魏 대에 이르기까지 隴西, 巴, 漢中 등지에 있던 氐系의 여러 집단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大月支와 小月支도 氐族이라고 보았다. 氐族의 내력과 그 분포에 대한 개략적 서술이다. 그 다음으로 晉末 五胡十六國時期에 대두하였던 氐族출신의 주요 세력들의 浮沈에 대해 각각 서술하였다. 즉 ‘宕渠李氏氐’ ‘武都楊氏氐’ ‘略陽符氏氐’ ‘三河王呂光’ 등이 그것이다.

氐族史에 대한 고찰에 이어 ‘西羌考’가 서술되었다. 이에서도 먼저 중국문헌에서 전하는 西羌의 기원에 대한 전설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春秋時代에서부터 魏晉代에 이르는 시기의 羌族의 움직임을 略述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주로 隋唐代에 있었던 羌族관계의 일들을 기술하였는데, 서술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按說을 불여 唐代의 西山八國은 東漢代에 岷山(지금의 사천성 서북부지역 : 편자) 이서에 있던 白狼 등 百餘國의 遺種이라고 주장하고, 자세한 것은 雲南記에 있다고 하였다. 이 ‘운남기’는 앞장에서 말하였듯이 《同文廣考》의 중국사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篇名이다.

그다음 ‘吐谷渾考’가 이어진다. 吐谷渾은 遼東鮮卑 徒河部 涉歸의 庶子인데, 嫡子인 莫容廆와 不和하여 3세기 말 집단을 나누어 서천하여 凉州 서남지역(지금의 青海省 : 편자)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내력을 서술하였다. 이어 五代末 吐谷渾이 소멸될 때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다음 五胡十六國時代에 羌族의 한 갈래인 姚氏 일족이 세운 秦의 역사를 다룬 ‘姚秦考’가 이어진다.

‘吐蕃考’에선 吐蕃이 본래 羌族이라고 하면서, 吐蕃의 발흥과정을 서술하고 吐蕃이란 호칭은 烫髮의 詛音이라고 하였다. 隋代에서 明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吐蕃의 역사를 길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唐宋 이후 北宋대에 걸쳐 靈州(오르도스지역 : 편자) 일대에 거주하였던 羌族의 일파를 기술한 ‘黨項羌’에 이어 ‘西河’를 서술하였다. ‘西河’는 西夏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다. 본래 河套(오르도스지역)의 서쪽에서 발흥하여 甘肅省 회랑지역과 섬서성 일대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던 西夏와 송, 거란, 여진과의 관계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土魯番’에 대한 서술이 있다. 이에선 먼저 元明 교체기에 西戎의 일종으로 토로번 즉 투르판이 있었다고 하고 그 위치가 하밀(哈密) 서쪽 1,500여리 祈連天山 남麓에 있다고 하여 그 위치를 밝히고, 하밀은 漢代의 敦煌 張掖 酒泉 등 三郡의 지역이다고 하여 중국과의 관계의 내력을 밝혔다. 이어 명과 투르판과의 관계사를 기술하였다.

또한 사천성의 서쪽으로 티베트고원에 접한 지역에 있던 松潘衛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주로 그 지리적 위치와 교통로에 관심을 두어 그에 관계된 歷代의 戰鬪 사실을 서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中國正史의 外城傳과 地理志 및 大明一統志 등등의 기사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든 이를 통해 중국 서북부지역에 등장하였던 ‘西戎’의 제종족들의 내력과 그 흥망의 줄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지역에 대한 자리 지식도 일부 얻을 수 있다. 이처럼 ‘西戎’에 대한 역사 지식의 정리는 우리 先人들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이다. 왜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궁금해진다. 그런 의문은 이 권의 후반부인 ‘西域’에 대한 서술에서 더욱 강해진다. 그럼 西域에 관한 기사를 검토해 보자.

#### 나) 西域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西域考’로 시작되어진다. 이에서 먼저 西域의 자리적 위치를 서술하여 玉門・陽關 以西의 지역을 西域이라 한다고 하고, 西域은 옛부터 네지역으로 나뉘어져 왔다고 하였다. 즉 流沙 蔴嶺(파미르고원 : 필자. 以下同) 以東지역 ; 蔴嶺 以西에서 西海(地中海)까지의 지역 ; 者舌(Tashkend) 以南 月氏 以上의 지역 ; 西海之間 水澤 以南의 지역 등 네 지역이 그것이며, 각 지역 내에는 백수십의 諸小渠長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西域으로 이르는 교통로는 옛적에 두 길이 있었는데 뒤에 다시 한 길이 더해져 셋이 있다고 하였다. 즉 玉門關에서 流沙를 전너 郡善으로 나아가는 길, 莎車(Yarkand)로 가서 서쪽으로 蔴嶺을 넘어 서로 伽倍(Wakhan)에 이르는 길, 莎車에서 서남으로 蔴嶺을 지나 波路(Bolor)에 이르는 길이 그것이라고 하였다.<sup>(24)</sup> 西域의 山河와 교통로의 대개를 말한 후, 漢代 아래로 明代까지 중국왕조와 西域諸國 간에 있던 주요 교섭관계와 入貢해온 諸國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明神宗 萬曆 년간에 ‘大西洋 歐羅巴’가 또한 入勤해 왔다고 附記하였다.

이렇게 그간의 西域에 관한 지식을 정리한 후, 다시 역대의 西域記를 살펴볼 때 그 땅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차차 그 지역적 범위에 관한 서술을 하였다. 즉

그 땅은 東으로 玉門 陽關에 접하고 西로는 西海에 이르고 北으로는 沙漠에 달하며 南으로는 交趾에, 東南으로는 雲南・諸甸(버마?)에 미친다. 그 땅이 數三萬里가 된다. 蔴嶺이 그 중앙에 위치하여 蔴嶺 以東 流沙 以西에 君長이 백수십이 되는데 高昌・疏勒・車師・樓蘭・烏孫의 무리가 그중 가장 크다. 蔴嶺 서북지역에 君長이 백수십인데 그 중 于闐, 大宛, 者舌, 月氏, 安息(Bohara), 蘭賓(Kapisa), 條支(Irak, Syria), 奄蔡(Aorsi) 등이 최대국이다. 蔴嶺 동남은 곧 天竺諸國으로서 君長이 백수십인데, 大夏(Bactriane) 身毒(India), 臨兒, 佛隸, 回回, 東印度 등이 큰 나라이다. 大秦一域은 西海(地中海)에 있는데, 琉球・日本이 동해 중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땅의 넓이가 팔구천리가 되며 여러 작은 군장이 흩어져 있으니, 澤散, 驢分, 且蘭, 思陶, 沔復, 賢督(Antiochia) 등이 그들이 다. 大秦 一名 犁達(Italia, Roma) 以西는 곧 日沒處이다. 利瑪竇(마테오 리치)가 말하는 대서양은 大秦인 듯하다.

이에서 저자는 漢代 아래로 주로 파밀고원 동・서쪽의 중앙아시아지역을 지칭하던 西域의

(24) 漢字 地名을 로마字로 표기한 것은 다음 책에 의거하였다.

馮承鈞 原編・陸峻嶺 增訂, 1982 《西域地名》北京, 中華書局.

범위를 넓혀 서쪽으로는 지중해 지역에 이르고, 남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西域’에 포함하였다. 지중해 연안과 대서양지역 그리고 인도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들어난 지식을 기준의 西域 개념을 확대시켜 이를 범주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보다 넓은 공간과 다른 문명에 대한 지식 자체는 들어났으나, 기본적으로 세계의 구성을 이해함에 있어선 기준의 관념을 그대로 잊고 있음을 보여준다. 西域諸國을 《同文廣考》의 전체 구성상에서는 ‘西戎’의 범주에 넣어 분류하여 함께 한 권에 기술함은 그러한 단면이다. 단 앞장에서 말하였듯이 ‘西洋記’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大秦記’도 있어 아마도 ‘西洋記’의 卷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것이 현존하였다면 보다 구체적인 서양제국에 대한 지식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유감스럽다.

아동든 위에서 인용한 글 중에 포함적으로 기술된 국명은 실제 역사상에서는 시간적으로 선후하여 등장하였던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어 이를 다시 각국별로 나누어 서술하여, 그 시간성의 일면이 부각 되었다. 즉 위에서 언급된 국가와 그밖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 각국별로 그 나라의 연혁, 중국왕조와의 관계, 물산, 지리적 위치와 기후, 종교, 문화 등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高昌國, 哈烈(Herat), 呼得國, 烏孫國, 疏勒(Kashgar), 龜茲(Kucha), 者舌(Tashkend, 康居), 奄蔡(Aorsi, 阿蘭), 于闐(Kohtan), 大宛(Farghana), 月氏(大月支), 鉢和(Wakhan), 波知(Parsa), 朱俱派(Karghalik), 甘藷, 安息(Bokhara), 條支(Syria, Irak), 廉賓(Kapisa), 烏戈山離<sup>(25)</sup>, 堅昆(Kirghiz) 등이 그들 나라이다. 이들 나라들에 대한 서술에서, 그에 관한 중국의 각 시기별의 지식이 혼효되어 기술된 것도 없지 않다. 가령 아프카니스탄 북부의 도시국가였던 廉賓(Kapisa)의 경우, 이를 ‘亦名 潛國 一稱 撒馬兒罕’이라 하였다. 潛國은 Jaguda로서, 이를 隋書에서 漢代의 廉賓이라고 잘못 기술하였는데<sup>(26)</sup>,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撒馬兒罕은 Samarkand로서 康居인데, 이 역시 廉賓과는 다른 곳인 데도 혼동하였다.

그 다음 인도지역의 나라들에 대한 서술은 따로 ‘天竺諸國考’에 하였다. 이에선 먼저 天竺은 一國의 명칭이 아니라 一域의 통칭이다고 하고, 그 지리적 위치와 山河에 대해 서술하였다. 天竺은 漢代에는 身毒, 五胡十六國 때에는 摩伽陀, 隋·唐代에는 婆羅門, 宋·元 이후는 印度라 하였음을 기술하고, 인도는 東西南北中의 다섯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三天竺이란 옛 구분이 바뀌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중국의 역대 문헌에 나오는 天竺 기사를 살피고, 그것을 통해 인도 諸國의 소재지의 위치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중국왕조와 인도 제국 간의 교섭의 내력을 서술하였다.

그밖에 석가모니의 출생지인 迦毗黎國 一名 臨兒國, 大夏(Bactriane), 佛隣國, 回回國

(25) 烏戈山離는 위의 《西域地名》에 의하면 Alexandria가 된다. 그러나 《同文廣考》의 서술내용을 보면 사마르칸드 서쪽, 條支國 동쪽의 어느 지역이 되어, Alexandria로 비정하기 어렵다.

(26) 위의 책, p.37.

一稱 默德那(Medina), 東印度 亦稱 榜葛刺(Bengal), 盤越國, 車離國, 妙香國, 巨人國 등 등에 관한 간단한 서술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西戎’의 제집단과 ‘西域諸國’에 대한 서술은 여러 시기에 존재했던 나라들을 망라하여서, 시대적 순차에 따른 정연함은 부족하다. 이는 斷代史의 外域傳이 아닌 이상 당시로선 불가피한 면이라 하겠다. 대체로 보아 그 서술순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가까운 곳의 족속과 국가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즉 사천성·감숙성 방면의 氐·羌 등의 역사를 살피고, 玉門 陽關 以西 파밀고원 以東 지역의 諸國들을, 이어 파밀 이서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의 국가를 서술한 뒤, 다시 파밀고원 이남의 인도와 그 인근 지역의 국가들을 서술하였다. 이에서 동원된 주된 자료는 중국의 정사와 역대 西域記들이다. 어느 정도 이들 사료를 잘 정리하였는지는 보다 자세한 검토를 요하지만, 일단 ‘西戎’과 ‘西域’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였던 일면을 보여준다. 조선學人에 의한 이 부분에 관한 최초의 저술이라는 점만으로도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 3. 日本記, 臺灣圖考, 琉球記

‘日本記’는 ‘倭國世系’가 그 첫머리를 구성한다. 神武天皇에서부터 18세기 중엽의 櫻町天皇까지의 이름과 前王과의 관계, 재위기간과 연호 및 재위기간 중의 주요 사실, 그리고 後西院天皇 이후는 朝鮮通信使의 訪日 등이 附記되어 있다. 年表에 해당한다. 이어 倭國百官六十三秩이 기술되어 있다. 그 다음 왜국의 六十六州를 畿內, 東海道, 山東道, 北陸道, 山陰道, 山陽通, 南海道, 西海道 등의 팔도 별로 기술하고 각 주의 所管郡의 수와 특산물 등을 적어 놓았다. 그리고 宮觀의 명승지를 부기하였다. 일종의 地誌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왜인의 풍속, 신앙, 賦稅, 공예, 儒學 등을 살피고, 상업, 병제, 성곽, 물산 등을 기술하였다. 그 중 구체적으로 몇몇 부분을 보면, 왜병이 강한 이유를 어릴 적부터 兵家에 의탁해 살아가 전투로 업을 삼아야 하는 日本社會와 武士階級의 성격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百工 중 기예가 뛰어난 자는 천하제일을 칭하게 되어 임청난 부를 얻게 되며, 존승받는 이가 죽으면 그를 위한 神宮을 세우며, 그리고 대외무역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외국상인의 안전을 보장해줌으로써 많은 異國文物이 멀리서 日本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 등을 特記하였다. 그리고 異國商船이 오는 것을 ‘貢使’라고 倭人들이 지칭한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부세는 수확의 삼분지일을 정수하고, 그밖의 요역이 없어 民이 이를 편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어 조선의 東萊에서 日本으로 가는 항로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상 日本記 전반부의 내용은 姜沆의 《看羊錄》에 많이 의거하였고 크게 새로운 면은 보이지 않는다. 李敦伸이 이용하였던 日本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sup>(27)</sup> 그러나 그

(27) 같은 시기의 李德懋의 《靖蛉國志》와 비교하여 볼 때, 《同文廣考》 日本記의 내용이 훨씬 소략함을 볼 수 있다(《국역 청장관전서》 권11 청령국지). 《靖蛉國志》는 壽草閣本 靑芸館全書에는 빠

런 자료들을 이용한 길지 않는 서술에서 당시 日本社會의 특징적인 면모를 짚약해서 담담하게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日本社會의 어떤 면에 관심을 두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李敦仲의 관심의 초점은 역시 日本의 침공에 대한 방어에 있었고, 자연 日本에 대한 인식의 기저에는 그들을 왜구로 여기는 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런 면은 日本記의 후반부 서술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日本記 후반부에선 먼저 日本과 중국과의 역대의 교섭 사실에 대해 개관하였는데, 왜구에 대한 것이 많은 면을 차지하였다. 이어 ‘新羅倭患’ ‘高麗倭患’ ‘朝鮮倭患’ 등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王亂 부분에 많은 면을 할애하였다. 看羊錄, 懲毖錄, 芝峯類說 등이 구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임란 이후 日本에 관한 적지 않은 저술과 使行錄이 쓰여졌다. 17세기의 그것에는 대체적으로 왜에 대한 적개심과 이를 夷狄視하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었다. 18세기에 들어서도 그런 면은 지속되나, 한편으로는 점차 보다 객관적으로 日本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입장도 대두하였다.<sup>(28)</sup> 또한 備倭論을 펴면서도 당시 주변관계에 주의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가령 李德懋(1741~1793)가 日本을 알고 대응키 위해 四方蠻夷의 정상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日本과 교역하고 있던 琉球 화란 등 20여 국의 상황을 기술한 것은 그런例이다.<sup>(29)</sup> 이런 면에서 볼 때, 李敦仲의 日本人식은 기본적으로 17세기 이래의 그것을 잇는 것이며, 그리고 지식면에서도 임란 때의 對馬島主를 平義智라고 한 그전 시기의 부정확한 지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등 새로운 면을 나타내주지는 못하였다.

‘臺灣國考’에선 臺灣의 위치 지형 등을 언급하고, 이어 明末清初의 臺灣의 역사를 서술하였다.<sup>(30)</sup> 즉 臺灣이 咖留吧(歐羅巴?)에서 온 荷蘭(화란)이란 紅毛蠻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明이 망한 후 鄭成功이 臺灣으로 전너가 이들을 몰아내고 섬을 차지하였는데 얼마 뒤 清이 이를 공격하여 멀하고 그 관도 내에 귀속시켰음을 약술하였다. 그리고 臺灣의 풍속을 서술하였는데, 臺灣 원주민의 그것에 대한 것이다. 끝으로 흥보국이 臺灣을 일시 점령하였을 때 그 ‘貢船’이 閩海에 왔는데, 그때 그들 흥보인의 모습과 의복 및 선박 등에 관해 기술하였다. 그 선박이 견고하여 항해에 최선이다는 점을 적기하였다.

‘琉球記’에서도 琉球의 위치, 토산, 풍속, 언어, 城과 廟屋 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으로서 청에 仕宦하여 琉球에 사신으로 갔다왔던 張學禮가 지은 사행록인 ‘琉球記’를 길게 인용하여 당시 중국과 琉球 간의 항로와 琉球의 문물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琉球의

서 있고, 현재 駒澤大學 圖書館에 唯一本이 소장되어 있다. 《鷗鷺國志》에 대해선, 河宇鳳 1985 〈李德懋의 鷗鷺國志에 대하여〉 《全北史學》 9 참조.

(28) 河宇鳳, 1989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p. 55.

(29) 주 (27)의 논문 참조

(30) 《同文廣考》에서 ‘某某記’ ‘某某考’라 하여, ‘記’와 ‘考’를 혼용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뚜렷한 성격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역사를 간략히 서술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日本記’ ‘臺灣國考’ ‘琉球記’로 구성된 이 권은 18세기 당시의 海東諸國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권에서 李敷仲은 이들 해동제국과 그와 관계된 荷蘭 등의 紅毛國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여 보다 넓은 지역과 인간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을 포괄한 세계 전체에 대한 그의 역사인식의 구도는 중국 중심의 그것이었다. 화란의 상선을 ‘貢船’으로 이해하였고, 日本은 그 문화와 사회의 특징적인 면을 주목하였지만 그 주된 인식은 변방의 왜구로 여겼음이다. 이는 그의 세계관과 함께, 그가 이용할 수 있었던 국내외의 자료들이 이미 그러한 틀 위에서 쓰여진 것들이었다는 점도 그러한 인식의 틀을 지속시키는 요인의 하나이었다. 그런 요소는 북아시아 제종족과 국가에 대한 이해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

#### 4. 北荒諸國考

서로는 天山山脈에, 東으로는 송화강 유역에 미치고, 南으로는 陰山 일대에 이르는 北아시아 草原지대에서 흥기한 諸種族과 국가들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이 권이다. 북아시아 유목민 세계는 동아시아 역사권에서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사의 전개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가져 왔었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중국문헌에서 일찍부터 등장하였는데, 그 것들을 모아 정리하여 그 대체적인 역사의 모습을 기술하였다. 먼저 ‘北荒’의 자리적 위치와 주요 사마 및 산들을 기술하여, 북아시아 역사무대의 특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어 이 무대에 등장하였던 주요 종족과 국가들의 흥망을 종족 계통별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이 유목세계의 東端이 扶餘, 高句麗로 이어짐을 기술하였다. 북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역사 무대의 국제적 위치의 일면이 보다 뚜렷이 인식되는 면을 보였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종족 계통별의 국가들을 기술하였는데, 그 흥기한 순서에 따라 ‘匈奴考’가 이어진다. 匈奴考에선 匈奴의 내력, 冒頓單于代에 흥기하던 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 匈奴의 제도 등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匈奴 계통으로서 그 뒷시기에 등장한 국가들의 흥망을 기술했다. 즉 五胡十六國時代에 浮沈한 匈奴 및 匈奴 別種인 羯族출신의 왕조들을 서술했다. 漢의 劉淵, 後趙의 石勒, 夏王 赫連勃勃, 北涼王 沖渠蒙孫 등등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晉書》載記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烏丸考’가 이어진다. 烏丸의 내력, 풍속, 중국과의 관계사 등이 쓰여졌는데, 《三國志》 烏丸傳에 주로 의거하였다.

세번째로는 ‘鮮卑考’가 있다. 鮮卑考에선, 먼저 선비족의 내력과 그 풍속 언어 등에 관해 주로 《三國志》 鮮卑傳에 의거해 정리한 다음, 선비족에 속하는 집단들의 4세기 이후의 동향을 그들이 세운 나라의 始祖別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前燕의 慕容廆, 後燕의 慕容垂, 北燕의 高雲, 南燕의 慕容德, 西燕의 慕容沖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鮮卑種에 속하였던, 遼

西의 段氏, 南涼, 乞伏氏의 西秦 등의 흥망을 기술했다. 같은 선비족 계통이지만 북중국을 통일한 왕조를 세운 拓拔氏에 대해선 따로 ‘元魏考’를 두었다.

‘元魏考’에선 拓拔鮮卑의 내력, 풍속, 그 원주지 등을 서술하고, 흥기한 후 6세기 중반 東·西魏로 분열될 때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어 동위를 이은 北齊太祖 高歡에 대해 따로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 중에서 전승간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사료 대비를 통한 고증을 하였다. 가령 漢族 출신으로서 北魏의 大臣을 지낸 崔浩가 誅殺된 원인에 대한 梁書와 魏書 간의 차이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리고 高歡의 出自에 대해선 그를 鮮卑種 또는 高句麗系라고 한 전승들을 검토 비판하고 그가 漢族임을 논한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sup>(31)</sup> 그의 결론이 맞고 그름을 떠나 일단 고증에 대한 상당한 열의와 수준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北周의 역사를 다룬 ‘宇文周考’가 이어진다. 宇文氏의 내력, 立國과정, 宇文氏 4대 24년 간의 왕위계승관계를 적기하였다.

이상은 4세기 이후 6세기 말까지 북중국에 들어가 부침을 거듭한 유목민 출신의 호족왕조들에 대한 서술이다. 북중국에서 전개된 왕조의 역사를 ‘北荒諸夷考’에 넣어 서술한 점이 유의된다. 華와 夷의 구분을 그 종족계통에서 찾는 면을 보여준다. 이는 18세기 당시 李敦仲 자신의 清朝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되는 바이다.

한편 5세기 이후 북아시아 초원지대의 상황을 살핀 ‘柔然考’ ‘突厥考’ ‘回紇考’ ‘沙陀考’ 등이 기술되었다. 唐末까지 ‘北荒’의 세계를 주도하던 주요 유목민국가들의 내력과 그 흥망을 약기한 것이다. 그 내용은 중국 정사의 열전을 암축한 것들이다. 그리고 ‘安史考’가 따로 서술되었다. 安祿山과 史思明의 亂에 대한 개요이다. 당의 절도사였고, 그 주된 활동 무대도 중국이었는데, 이를 ‘北荒諸夷考’에 넣었던 것은 안록산이 요서지방 柳城의 鞢族 또는 雜胡 출신으로서 胡風을 지녔다고 여겼음에서 일 것이다.

끝으로 거란에 대해 서술하였다. 거란의 내력, 풍속, 阿保機代의 흥기과정과 태종의 계위를 둘러싼 문제, 遼代의 이리저려한 遺事와 그 멸망에 관한 것들이 서술되었다. 요는 二院體制를 구성해 중국왕조로서의 면모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北荒諸夷考’에 넣었던 것도 앞의 北魏나 北齊 北周 등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인식에서였다.

이 ‘北荒諸夷考’에서 蒙古와 女眞이 빠졌다. 시대순으로 볼 때에 거란 다음에 여진 등과 흥기하였다. 그런데 앞장에서 말했듯이 ‘女眞記’와 ‘蒙古記’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여진과 동고는 북중국이나 중국 전체를 지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서술 내용도 그 분량이 많았을 것이므로, 특히 동고는 고려와 깊은 관계가 있었고 여진은 金과 清 두 차례 중국을 지배하였으므로, 이들 두 記는 따로 각각 권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金과 元은 비

(31) 高歡의 出自는 胡族으로 보는 게 學界的 通說이다.

濱口重國, 1966 〈高齊出自考 一高歡の制霸と河北の豪族一〉《秦漢隋唐史の研究》 참조.

특 중국을 지배한 왕조였지만, 북위나 요에 대한 李數仲의 인식과 서술을 볼 때, 그 역사 는 ‘女眞記’와 ‘蒙古記’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것들은 ‘北荒諸夷考’에 이은 권으로 되었 을 것으로 추정케 한다. 그러한 면은 燕京지역에 대해 서술한 일사문고본 卷 1의 말미에서 연경에 도읍한 것이 明의 가장 큰 멸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경은 그 形勢를 볼 때 ‘宜爲遼金元猶夏之居 而非中國帝王之宅也’라고 한 데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즉 일사문고본 《同文廣考》의 卷次에 의거하면 권 28, 29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李數仲 의 화이관의 단면을 말해주는 바이다.

### 5. 중 국 사

《同文廣考》의 중국사 부분의 서술은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일사문고본에 그 일부가 남아 있다. 원래 중국사만을 上代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각 지역을 단위로 하여 서술되어 그 각각이 일종의 지방사와 같은 성격을 띤 23권의 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만큼 同文廣考의 중국사 이해체계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혼존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燕薊記 金陵記 汴京記 江都記 蘇州記 杭州記 梁蜀記 등이다. 그 대상지역 각각은 중국사에서 한 왕조의 수도나 주요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그 곳에 대한 서술에서 그 지역을 무대로 하였던 왕조의 역사와 문화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한 부분의 기사를 통해 李數仲의 중국사 이해와 지식 및 그 역사인식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燕薊記는 일사문고본 권 1에 있다. 이 권에는 그 밖에 高士奇가 지은 燕京宮殿記와 康熙御製弘仁寺碑文, 그리고 大明逸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북경 일대 지역과 연관되는 것이므로, 권 전체의 명칭을 燕薊記라 해도 좋겠다. 이중 燕京宮殿記와 康熙御製弘仁寺碑文은 자료로서 수록해 좋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燕薊記에선 먼저 上代 아래로 燕地 즉 北京일대 지역의 연혁을 개관하였다. 그 다음 이 지역의 주요 산하와 고적들을 그것에 연 관된 역사적 사실 및 인물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자연 북경지역을 무대로 한 중국사의 일면이 친밀하게 다가온다. 이런 식의 서술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記’에서도 공통 된다.

북경은 明의 수도였다. 그런 만큼 明史에 대해 깊은 관심을 이에서 표하였다. 특히 조선 인들의 崇明意識과 연관되는 바로서, 明代史와 明이 망한 후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大明 逸記’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져 이 권에 수록되었다. ‘大明 逸記’에는 明太祖 아래의 각종의 遺事와 史話 및 북경성이 함락되는 상황과 그 후 명 왕실의 일족이 벌인 부홍운동, 그리고 吳三桂의 거병 등등이 서술되어 있다. 그중 후자는 ‘吳三桂本末’이라 하여 길게 서술했다. 吳三桂의 출신과 李自成에 의해 북경성이 함락된 뒤 吴三桂가 청군에 투항하여 취한 행위, 雲南에서의 反清擊兵의 시발 등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시종 吴三桂의 행위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며, 그의 거병이 실패한 데에 대한 짙은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이 부분을 서

술하면서, 당시 조선의 東萊府使가 倭側을 통해 얻은 吳三桂의 거병과 그리고 鄭成功과 臺灣에 관한 정보를 보고 올린 두 차례의 狀啓라든가, 朝鮮 使臣이 燕京에 使行가던 중에 들은 소식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倭를 통해 입수된 吴三桂의 檄文을 轉載하였다.

아동든 明의 부흥운동에 관한 ‘南明史’나 ‘明遺臣傳’과 같은 類의 저술은 당시 조선 학인들에 의해 상당히 읽히고 쓰여졌던 바이다.<sup>(32)</sup> 《同文廣考》의 저자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명이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그나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李敦伸은 명의 멸망 원인으로 다섯을 거론하였다. 첫째, 永樂帝 때 빈번한 外征으로 많은 人命을 살상한 점. 둘째, 德治가 부족하고, 刑獄을 남용한 것. 셋째, 환관과 비첩이 권력을 농단하여, 부패가 심하였던 점. 넷째, 萬曆年間에 墳稅를 심하게 징수한 점. 다섯째, 수도를 지리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金陵과 燕京에 둔 점, 특히 永樂帝 이후 북변에 가까운 燕京에 둠으로써 국경 방어에 국력을 쏟을 수 밖에 없게 되어 괴폐해 되었던 점 등이다. 이중 앞에서부터 넷은 타인에 의해 거론되었지만, 수도의 위치에 관한 점은 자신이 처음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자부하였다.<sup>(33)</sup>

연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서술형태와 내용구성은 다른 記에서도 대체로 공통된다. ‘金陵記’에선 金陵의 연혁, 지세, 성곽, 樓臺 등 고적 명소, 題詠 등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이어 인물을 삼국시대의 孫吳 때부터 차례로 서술하였다. 帝王, 公侯, 將軍, 僧侶 등 등이 언급되었다. 이들을 통해 南京을 무대로 한 중국사의 흐름이 맥을 갖추어 부각되었다. 특히 남경에 도읍을 두었던 六朝(吳·東晉·宋·齊·梁·陳)時代와 明初의 역사에 많은 분량을 두어 서술하였다. 그리고 明亡 후 金陵 및 강남 일대에서 전개되었던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한 서술을 하여, 저자의 관심의 일단을 나타내었다.

梁州 즉 漢中 지방과 蜀지역을 다룬 ‘梁蜀記’에서는 먼저 양주의 자리 연혁 풍속 고적 등이 서술되었다. 이어 촉에 대해서도 자리 산천 도로 연혁 성읍 고적 물산 인물 등이 기술되었다. 일종의 地誌와 같은 구성이다. 그리고 蜀地의 인물들을 清初까지 논급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그 자체가 이 지역사이다. 끝으로 ‘接’을 붙여, 앞에서 중국측 자료에 입각해 나열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압축하여 약술하였다. 이런식의 ‘接’은 앞의 金陵記에서도 보인다.

‘江都記’도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江都는 淮南의 廣陵郡에 있는데, 이곳은 隋煬帝가 行都로 삼았던 곳이었으므로 江都記에선 그와 연관된 기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宋의 수도를 서술한 汴京記의 구성도 동일한데, 그 내용에 있어선 변경을 무대로 한 북송대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기술되었다. 변경기의 끝에 宋史에서 송의 멸망원인으로 ‘聲容盛而武備衰 議論多而成功小 是以女真爲宋人曰 汝家議論定時 吾已渡河’라 한 것을 들면서

(32) 吳金成, 1983 〈朝鮮學者之明史研究〉《中韓關係史國際研討會論文集》

(33) 黃宗羲(1610~1695)의 《明夷待訪錄》建都篇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李敦伸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 같다.

‘文治之國 自古而然矣’라 하였다. 汴京과 송의 역사를 보는 저자의 시각의 단면을 보여주며, 그것은 또한 비슷한 면을 지녔던 朝鮮朝의 역사에 대한 저자의 감화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蘇州記’에선 연혁 자리 물산 경승 등과 함께 이 지역의 역사로서 춘추시대의 吳와 越의 그것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리고 漢代에서 明末까지 이 지역과 관계된 인물을 시대순으로 서술하였다.

‘杭州記’에서도 기본 구성은 같다. 이 지역이 남송의 수도 臨安이었으므로, 남송대의 역사와 문화가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빼어난 경승과 고적 및 그와 연관된 文化史의으로 주요한 송대의 학자와 문인 정치가들에 관한 논급이 많음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핀 중국 부분에 관한 서술은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자세하다. 많은 부분은 이러한 각종의 중국서적에서 발췌하여 전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면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방대한 양의 중국서적의 섭렵을 통한 지식의 축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면은 앞 절에서 본 西域이나 北荒諸夷에 관한 서술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 18세기 당시 조선 학인들의 漢字로 표현된, 즉 同文의 세계에 관한 지식의 축적이 방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同文廣考가 왜, 어떻게 저술되었을까?

#### 四. 《同文廣考》의 성격

##### 1. 저술 배경

현존하는 同文廣考에는 序文과跋文이 없으며, 李敦仲의 行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完帙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現傳하는 殘帙의 내용만 가지고 살펴 볼 때, 이 책을 쓰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담은 기사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0권의 방대한 이 저술을 왜 하였을까를 추구하기 보다는, 어떻게 이와 같은 저술이 가능했을까 하는 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 편리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18세기에는, 특히 正祖代에, 중국사에 대한 연구와 편찬이 활발하게 행해졌다. 그 중 明史에 대해선 ‘明紀提挈’ ‘明史綱目’ ‘明史紀略’ ‘明史纂要正綱’ ‘明朝殉節諸臣錄’ 등등이 있고, 宋史에 대해선 ‘宋史鑒’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34)</sup> 중국사 중에서 특히 宋史와 明史에 대한 연구와 편찬이 집중되었다. 이는 元代와 清代에 正史로서 편찬된 ‘宋史’와 ‘明史’에 조선 학인들이 불만을 느꼈음에서 일차적으로 비롯하였던 바이다. 가령 ‘宋史鑒’의 경우, 기존의 宋史와 대비할 때, 성리학을 세운 周敦頤 등을 기린 ‘五賢傳’을 諸臣傳의 첫머리에 두었던 점, 宋과 동시기에 존재하였던 遼·金·元의 역사를 外國列傳으로 처리한

(34) 주 (3)의 논문 참조

점, 그리고 송이 망한 후 부흥운동을 펼쳤던 이들을 기술한 ‘宋遺民傳’을 둔 점, 藩臣列傳을 강화한 점 등이 특색으로 지적되었다.<sup>(35)</sup> 明代史에 있어서도 清初에 편찬된 ‘明史’는 崇禎제가 죽고 북경성이 이자성에 의해 함락된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그에 비해 조선 학인들은 명 부흥운동에 대해 관심을 크게 기울여 그 저술들에서 南明史와 明遺民傳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sup>(36)</sup> 이런 면에서 보이는 공통된 점은 遼·金·元 등 異族 출신 왕조를 夷狄視하는 의식이다. 자연 그런 의식에선 동고와 여진에게 망한 송과 명의 부흥운동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식의 기저에는 ‘夷狄’의 武力에 대응한 中華文明과 그 精粹로서의 儒學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깔려 있었다. 나아가 이제 중국이 夷狄의 지배 하에 있으므로 중화문명을 계승 發揚시켜야 하는 과업은 조선학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수반하였다. 그래서 이를 역사 연구와 편찬에 투영시켜 앞에서 든 史冊들이 이 시기에 편찬되게 되었던 바이다. 이런 편찬 작업은 또한 조선왕조와 그 지배층인 사대부들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당시 안팎으로부터의 충격과 도전을 받아 혼들리고 있던 기존의 사회질서와 성리학 중심의 이념체계를 재확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여겼던 바이다. 물론 그와 같은 인식이 당시 모든 조선 학인에게 공통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대부층의 의식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明紀提挈’ ‘宋史筌’ 등등의 중국사를 편찬케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었던 몇 가지 점이 유의된다. 첫째는 중국사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십화이다. 조선 학인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기존의 중국사들을 비판하면서 중국사를 편찬하게 되니, 자연 새로운 자료와 사실들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중국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바이다. 둘째는 異域에 대한 이해가 확충되었던 점이다. 즉 중국사를 漢族의 입장에 선 華夷觀에 의거해 저술함으로써 기존의 ‘正史’의 편제에 따라 外國傳 또는 鬪夷傳을 서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 주변의 제국가와 종족들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생겼으며, 자연히 그에 관한 이해가 확대되었던 바이다. 셋째는 이러한 작업을 행함은 곧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었다. 넷째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광범한 史書類가 집적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은 ‘宋史筌’이 正祖의 御撰이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널리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宋史筌’의 경우 正祖가 東宮時節부터 착수하여 주된 역할을 하였지만, 臣僚들이 참여하였다.<sup>(37)</sup> 그런 만큼 ‘宋史筌’의 편찬 작업과 그 내용은 都下의 사대부층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리고 1730년에 쓰여진 24권 30책으로 된 李玄錫의 ‘明史綱目’, 南有容(1698~1773)의 ‘明史纂要正’(19권 9책) 등등의 중국사 관계의 개인 저술이 상당히 행해졌음을 고려할 때, 위에서 지적한 요소들은

(35) 李成珪, 1980 <‘宋史筌’의 編纂 背景과 그 特色> 《叢書學報》 49.

(36) 주 (32)와 같음

(37) 주 (35)와 같음

충분히 상정해 볼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북경으로부터 많은 書冊들이 조선에 들어왔다. 燕行使에 의해 구입된 수많은 책들이 홍문관과 규장각 등에 비치되었다. 使行員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책을 구매하여 소장하였는데, 그런 책들은 곧바로 필사되어 유통되었다.<sup>(38)</sup> 별로 顯達한 집안 출신이 아닌 《海東釋史》의 저자 韓致齋도 그의 집에 540여종의 서책을 소장하고 있었다.<sup>(39)</sup> 많은 양의 서책의 구입과 소장은 중국사를 서술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사에 대한 관심이 이를 촉진시켰고, 그리고 방대한 서적의 확보가 중국사 등에 대한 서술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조선 후기인들의 중국사에 대한 인식과 사서 편찬의 영향으로 상정한 측면을 《同文廣考》의 내용에 대비시켜 보자. 먼저 《同文廣考》에서 北魏와 遼, 金과 元을 각각 ‘北荒諸夷考’와 ‘女眞記’ ‘蒙古記’로 다루었던 점은 ‘宋史鑒’에서 遼·金·元을 外國列傳으로 취급한 것과 상통하는 역사인식이다. 그리고 명의 遺臣들의 부흥운동을 중시한 것도 明史에 관한 이 시기 사서들의 그것과 통한다. 무엇보다 ‘宋史鑒’에서 보이듯 四夷傳을 수반한 紀傳體 형식의 중국사를 편찬한 당시 조선학인들의 역사인식은 중국에 관한 23권의 서술과 7권의 四夷에 관한 서술로 구성된 《同文廣考》의 그것과 상통하는 바이다. 이에서 왜 《同文廣考》의 저자가 고금을 통해 조선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왔던<sup>(40)</sup> ‘西戎’이나 ‘西域諸國’에 대한 서술을 한 편에 걸쳐 하였으며,歷代에 걸친 北荒의 諸種族들의 역사를 정리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가능케 하였던, 시대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이들 부분에 관한 서술의 내용도 중국인의 시각에서 쓴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 《同文廣考》의 중국 부분에서 보이는 중국사와 중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박한 지식, 그리고 수많은 문헌의 섭렵 등도 앞에서 상정한 18세기 조선학인들이 지니었던 중국사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 따른 문화 환경과 유관한 것이다.

이렇듯 李教仲이 살았던 시기에 풍미하였던 역사인식과 중국사 관계 서술을 살펴보자. 간접적으로 《同文廣考》가 저술되게 된 배경과 그 성격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同文廣考》에서 제시된 세계사 인식의 모습을 국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 정리해 보자.

## 2. 《同文廣考》에 보이는 世界史 認識體系

먼저 《同文廣考》에서 언급된 세계의 공간적 범위는 동으로는 日本·琉球·臺灣에, 북으

(38) 李元淳, 1986 《朝鮮西學史研究》 pp. 28~30.

(39) 韓致齋의 家系와 生涯에 대해서는 韓永愚, 1989 〈19세기초 ‘海東釋史’의 歷史敍述〉 《朝鮮後期史學史研究》 참조

(40) 고구려 말기에 사파르칸트에 있었던 康國에 사신을 보내어 교섭을 하였던 바 있지만(盧泰教 1989 〈高句麗渤海人과 內陸 아시아 住民과의 交涉에 관한 一考察〉 《大東文化研究》 23. 참조) 조선 후기인들이 이를 알았을 리 없다.

로는 동고고원에, 남으로는 交趾, 서남으로는 인도·벵갈·버마 등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西洋記’가 전해지지 않아 그 구체적인 이해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아태리와 大西洋 歐羅巴 등의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 일단 서유럽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적 범위 자체는 이미 Julius Aleni(艾儒略)의 ‘職方外記’와 Ferdinandus Verbiest(南懷仁)의 坤輿圖說 등의 地理書와, Matteo Ricci의 坤輿萬國全圖와 Verbiest의 坤輿全圖 등의 지도가 조선에 전래되어 알려져 있던 당시 상황에서 볼 때<sup>(41)</sup>,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同文廣考》에서도 ‘마테오 리치가 말하는 대서양’을 언급하고 있어 李敦仲 자신도 그의 세계지도를 본 듯하며<sup>(42)</sup>, 五大洲의 존재를 언급한 職方外紀 등은 당시 조선 학인들에게 상당히 널리 읽혀졌다.<sup>(43)</sup> 즉 앞에서 언급된 공간적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중 일정한 공간적 범위만을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그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지식은 ‘同文’ 즉 漢文으로 기록된 지식이다.

‘同文의 世界’는 同文을 常用하는 공간과, 그리고 그 바깥의 지역이지만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해 同文으로 기술된 지식을 가지게 된 공간을 아우른 것이다. 그 당시 同文으로 표현된 지식이란 단순히 한문으로 표기하였다거나 번역하였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異域의 문물과 역사를 일단 漢文 文化的 기준에 의거해 이해 정리한 것이 된다. 즉 同文化(equalize)의 과정을 거친 이해인 것이다. 자연히 外國異域의 문화는 전통적인 유교 등의 東亞文化에 입각해 이해하였고, 그들 국가와의 관계 역시 朝貢關係로 인식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同文化하여 이해케 되지 못한 공간은 세계인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바로 이 同文의, 그리고 同文化하여 이해한 지역이 李敦仲의 세계인식의 공간적 범위이며, 《同文廣考》의 세계인 것이다.

그럼 이 同文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움직였으며, 그리고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李敦仲의 인식은 어떠한가? 그 점은 《同文廣考》의 체계에서 잘 나타나 있다. 30권 중 거의 五分之四가 중국관계의 서술이고 그것이 앞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 권24 이하 7권에 조선 등등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단면이다. 즉 세계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고 그 주변에 四夷가 있으며,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고 또 움직여 갈 것이다 는 것이 그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중국과 주변의 諸國과의 관계는 序階化된 上下朝貢關係가 바람직한 형태이다는 입장이다. 이런 인식에는 당연히 중국문명에 기원을 둔 同文의 문학 즉 儒學을 근간으로 하는 東亞 전통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깔려 있다.

17·18세기 조선 학인들은 기존의 同文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명에 대한 지

(41) 李元淳, 앞의 책 pp. 81~89 참조

(42) 奎章閣本 《同文廣考》卷2 西域考 末尾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43) 주 (40)과 같음

식을 상당히 접하였다. 물론 당시 서양문명에 대한 이해는 天主教 神父나 그 漢人 隨從者에 의해 漢文으로 쓰여진, 즉 同文化된 西學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이름난 선비들은 西學書를 마치 諸子百家나 道·佛書와 같이 자신의 서재에 갖추어 두었다고 한다.<sup>(44)</sup> 그런데 이렇듯 西洋諸國과 그 문명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고, 세계에 대한 이해의 공간적 범위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대다수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본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은 여전하였다. 기존의 중국 중심의 同文의 세계에 새로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등장하였으나, 이것들을 ‘外夷’의 한 부분이 침가되어 그 공간적인 外延이 확대된 정도로 인식하였던 바이다. 이런 면은 규장각본 권 2에서, ‘西戎’과 그 연장으로서의 ‘西域’에 대한 서술 부분의 후반부에 새로이 同文化된 지식을 통해 인식케 된 異域들에 대한 언급을 더 첨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西洋記’도 ‘四夷’에 대한 서술 부분에 포함되었음을 그려하다.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한 인식에 입각한 《同文廣考》의 세계사 인식의 틀은 자연히 중국사가 중심이고 그 외곽에 四夷의 역사가 있으며, 그 ‘四夷’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선 上代 이래 중국과의 교섭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사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일본사에 대한 서술을 제외하고는, 여타 국가의 종족들의 그것은 중국과의 교섭관계의 시간적 순차와 중국과의 공간적인 원근에 따라 차례로 기술되었다. 곧 《同文廣考》의 세계사 인식의 틀은 기존의 華夷觀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紀傳體의 중국 正史에서 보이고 있는 그것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었다.

## 五. 맷 음 말

倭亂과 胡亂이라는 대의적인 위기를 겪은 뒤, 조선 학인들은 새로이 조성된 국제환경 하에서 自國의 位相을 설정하는 데에 고심하였다. 특히 建州女眞의 清이 중국의 주인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굳힐에 따라, 이 새로운 현실 상황과 기존의 관념사이의 乖離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심한 이념적인 갈등을 겪어야 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17세기 이래로 燕京을 통해 西學이 전래되어 이 역시 전통적인 관념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 가운데서 조선 학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해나갔다. 그 중 한 흐름은 오히려 전통적인 華夷觀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강화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었다. 17세기 이래 西學을 포함한 보다 확대된 세계에 대한 지식도 이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清朝의 制霸라는 현실 상황은 逆으로 조선 학인이 中華文明을 繼承 發揚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촉발하여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가져 왔고, 그것은 중화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굳혀 주었다. 《同文廣考》는 그와 같은 역사의식과

(44) 《順庵集》卷 17 天學考

문화플트의 산들이었다.

18세기 후반 李教仲에 의해 쓰여진 《同文廣考》는 그 시대 나름의 世界史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 선인들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세계사이다. 《同文廣考》에서 논급된 세계의 공간적 범위는 同文의, 同文化하여 인식한 지역이었다. 이 同文의 공간인 세계는 중앙에 있는 중국과 그 주변에 있는 四夷로 구성되었고,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또는 나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同文廣考》에서 보이는 이러한 세계사 인식체계가 반드시 그 시대 조선 학인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류가 되는 인식경향이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현재적 관점에서의 好不好를 떠나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이 점은 곧 개항 이후 武力과 함께 밀어닥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명과 세계인식에 대해 우리 선인들이 느꼈던 당혹감과 그에 따른 혼돈을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되는 바이다.

개항 후 맞이하게 된 새로운 세계는 同文의 세계가 아니었으며, 새로운 문명은 同文化시켜 이해하는 즉 '同文學'의 차원에서 대처해도 좋을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계질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제 同文이 아닌 대등한 他文明圈의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하여야 되었고, 세계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서 새로이 '萬國'이란 개념이 부각되어졌다. 萬國이란 말은 마테오리치의 세계지도를 萬國坤輿全圖라고 하였음에서 보듯 그전부터 쓰여졌고 알려져 왔다. 이 萬國이란 개념은 곧 中華 중심의 인식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세계 여러나라와 諸文明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同文의 世界'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진 국제적 상황하에서, 萬國이란 개념이 새롭게 재인식되었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쓰여지게 되었다. 1886년(고종 23년) 博文局에서 英國의 年鑑을 번안해서 일종의 世界人文地理書적인 성격을 띤 '萬國政要'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朝貢冊封關係에 의거한 典禮가 아니라, 대등한 국가간의 관계의 형식을 취한 국제법인 萬國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고, 자연 그에 따른 새로운 세계사 인식체계가 모색되게 되었던 바이다. 그것은 곧 《同文廣考》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세계사 인식체계와의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同文廣考》에서 보이는 세계사 인식체계는 근대적인 역사인식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同文廣考》는 전근대시기 同文의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광범하게 이해 정리하여 우리 사학사에서 최초로 세계사에 해당하는 구성을 보였고, 이를 통해 18세기인들의 세계인식의 한 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바이다.